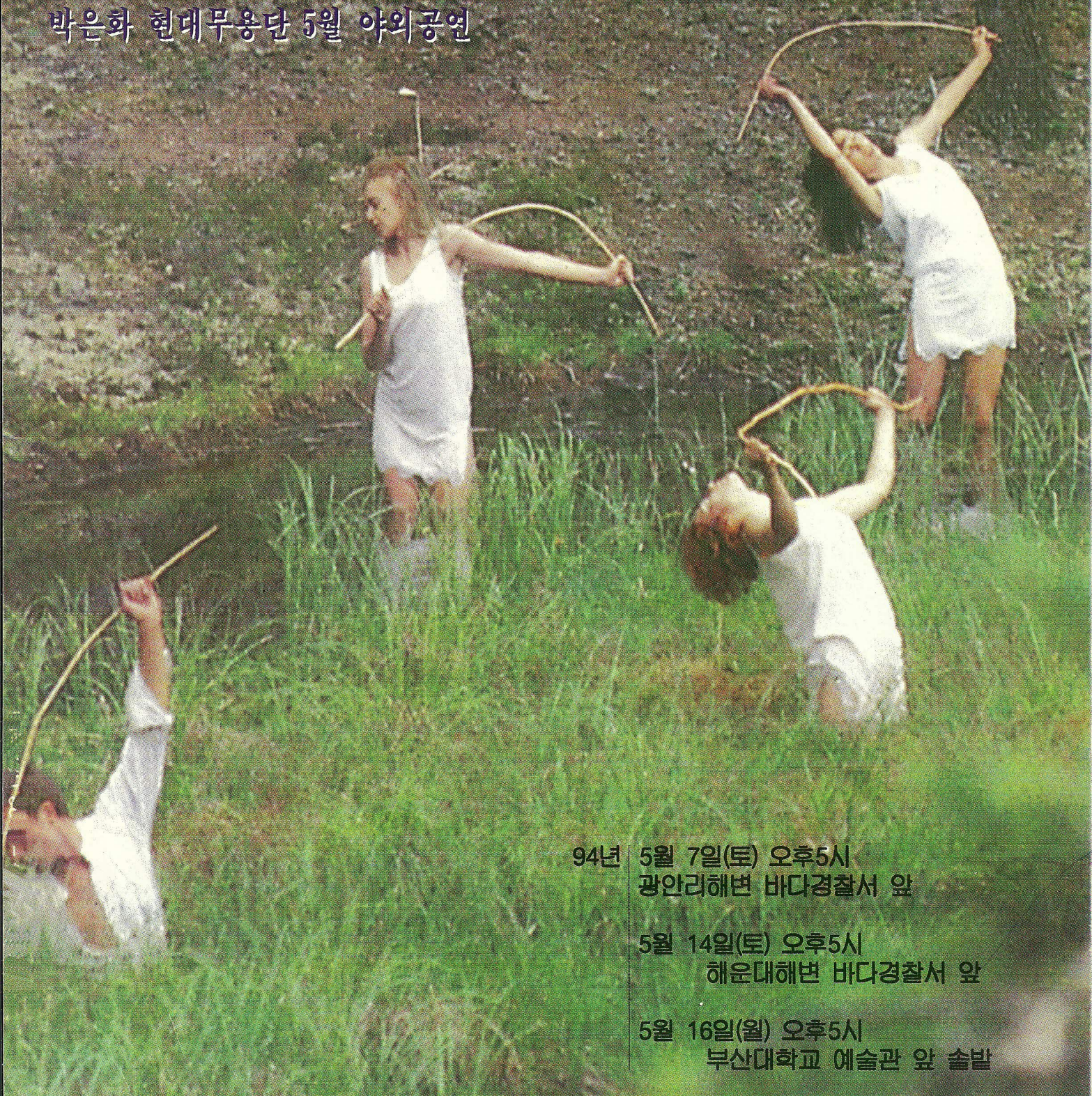


자연 · 춤 의 어울림

박은화 현대무용단 5월 야외공연



94년 5월 7일(토) 오후5시
광안리해변 바다경찰서 앞

5월 14일(토) 오후5시
해운대해변 바다경찰서 앞

5월 16일(월) 오후5시
부산대학교 예술관 앞 솔밭

늘푸른 춤을 위하여

5월 푸른 자연 가운데 인간의 사는

모습과 움직임이 얼마나 아름답고

진속하게 잘 어우리는가를 새롭게 느끼게 할

살아 숨쉬는 바다와 춤
온기를 갖게하는 숲과 춤

이 있는 시간

속으로 당신들을 초청합니다.

박은화 현대무용단 일동

자연의 소리, 인간의

소리 그것들과 함께 생음악연주와

황기찬 춤판이 푸르고 자유로운 시간을

갖게 할 것입니다.

푸른 자연이 인간과 함께 있어야 하듯

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

바로 이것이며 항상 가까이 있는

자유로운 춤입니다.



● 예술감독 및 안무

박은화(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전임강사)

● 음악

성기영(부산대 국악과)

박미애(부산대, 국악과 졸업)

● 지도강사

홍순아, 정미영, 김정향(부산대 무용학과 졸업)

● 출연

홍순아, 정미영, 김정향, 김문선, 박상진,

서상희, 권오경, 김보경, 정진희, 고은미,

문은아 송윤경(부산대 무용학과 재학생)

이 공연은 부산직할시 문예창작 지원금의
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입니다.